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의 초현실주의 표현기법 분석

— 「추상화된 도시」, 「흩어진 군중」, 「헤테로토피아」를 중심으로 —

안현민*

I. 서론

II. 초현실주의 개념과 기법

III.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현실주의는 비평가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이 오스트리아의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탐구하여 나온 20세기의 예술사조이다. 초현실주의는 이성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과 환상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시작은 다다이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다이즘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브루주아 문화의 파괴 운동이며 그 역할에 문학과 예술을 앞세웠다. 현대미술용어사전에서 “다다와 초현실주의는 공통적으로 유럽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혁과 부정으로 향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혁신, 혁명의 이념을 배태하게 되었고, 또한 예술적으로는 격렬하게 재래의 예술형식을 파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고 언급했다. 이러한 다다이즘의 영향으로 이성적인 사고 안에 잠재되어있는 무의식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인 초현실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예술가들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로 인해 파괴와 혼란의 상태가 되었고 문학과 예술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이 큰 변화로 구축된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은 주로 문학이나 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분류되었고 1950년대 이후 현대무용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²⁾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용가들은 감정표현이나 연극적 요소가 아닌 신체의 움직임 자체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 중 하나인 자동기술법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초현실주의의 6가지 표현기법 중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hyunmin0342@gmail.com

1) 열화당 편집부(1986), 『현대미술용어사전』(경기: 열화당), p.39.

2) 조규성(2015), 미디어를 활용한 컨템포러리 댄스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2.

의가 강조하고 있는 무의식을 이용한 표현을 이야기한다. 그 외 콜라주, 프로타주, 데페이즈망, 오브제 등이 초현실주의를 시각예술 작품에 녹여내는 대표적인 표현기법이다. 초현실주의의 등장 이후 무용예술에서 무의식과 즉흥성이 강조되어 많은 안무가들이 의식적인 기술이나 의도가 아닌 즉흥적인 요소를 작품의 주요 일환으로 첨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현대무용에서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두드러지게 내포한 작품의 안무가로는 윌리엄 포사이드가 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의 작업에 대해 “명확한 줄거리나 캐릭터가 없이 만들어졌고 발레의 연극적 언어를 간결하게 해체하고 다른 예술요소들을 초현실적인 연극적 요소와 함께 춤과 배치한다.”³⁾ 고 소개했다. 이와 같이 윌리엄 포사이드는 발레를 기반으로 한 안무가로서 국제적으로 그의 작품들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는 1949년 미국에서 태어나 발레를 배워 1973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Syuttgart Ballet)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며 안무를 시작했다. 그 후 2005년, 포사이드 무용단(Forsythe Company)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활동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임프레싱 더 시צר *Impressing the Czar*」(1988), 「재생된 하나의 평면 *One Flat Thing, reproduced*」(2000), 「헤테로토피아 *Heterotopia*」(2006), 「사이드 *Sider*」(2011) 등으로 무용의 움직임 뿐 아니라 시각적인 예술 요소를 함께 작품에 담아낸 안무가다. 그는 특히 여러 무대세트와 오브제의 활용으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자리매김했다.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은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그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선행논문들은 약 5편⁴⁾이 있으며 주로 오브제의 특성이나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된 논문이다. 또, 무용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규성(2015)의 미디어를 활용한 무용 작품 속 영상기법에 담긴 초현실주의 표현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또 하나의 선행연구로 왕자목, 조은숙(2021), 「피핑톰 무용단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특성으로 무용작품을 분석하였다.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으로 작품이 분석되는 것은 주로 문학이나 미술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현대무용의 작품을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아닌 기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보기 힘들다. 초현실주의의 특성은 작품에 내포되어있는 내용이나 의도 등을 통해 분석되지만 표현기법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을 움직임이 아닌 이미지 관점으로 바라보아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아닌 표현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윌리엄 포사이드의 대표 작품 3개를 선정하여 그의 작품에 담긴 초현실주의적 기법과 표현을 분석하는 것이다.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 중 초현실주의의 기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세 작품, 「추상화된 도시 *City of abstract*」(2000), 「흩어진 군중 *Scattered Crowd*」(2002), 「헤테로토피아」(2006)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세 작품은 윌리엄 포사이드가 2000년대 이후로 안무를 한 작품들이며 무용 뿐 아니라 다른 장르와 함께 콜라보 작업한 창작 작품들로 그의 예술세계를 폭넓게 분석할 수 있어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의 초현실주의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학위 및 학술 논문, 평론, 단행본, 무용 서적, 잡지 등을 참고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영상

3) Oxford Reference,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095829684>, 2021. 3. 20.>.

4) 이주형(2010), 윌리엄 포사이드의 공간구성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재혁(2015),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희(2016),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에 활용된 오브제의 표현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민정(2018), 윌리엄 포사이드의 안무 성향에 관한 고찰: 한국 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부세희(2018), 「Heterotopia」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을 참고하고 초현실주의의 6가지 표현기법 중 오브제와 레이오그램을 제외한 자동기술법(Automatisme), 데페이즈망(Depaysement), 콜라주(Collage), 프로타주(Frottage)를 정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브제는 이 단일 표현 기법으로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많아 제외하였다. 또한 레이오그램은 이미지의 명암을 이용한 기법으로 무용작품에 적용하기 어려워 배제하였다.

II. 초현실주의 개념과 기법

초현실주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예술사조로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초현실주의’는 문학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초현실주의’ 표현의 시작으로 시인 아폴리네르는 1917년 장 콕토의 발레극 「페레이드Parade」와 자신의 작품 「티레시아스 유방 Les Mamelles de Tiresias」을 초현실적이라고 표현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 1차 세계대전과 대학살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현실을 초월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⁵⁾ 그 시작으로 다다운동이 출현하였다. 다다이즘은 유럽의 전통적인 체제를 파괴시키고 브루주아의 문화를 반대하며 그 주장을 예술 세계에서 거침없이 펼쳐나갔다. “다다의 주요특징은 자신만의 표현방법으로 추구하는 각 개인들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⁶⁾ 이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그 시대의 개혁을 일으키며 예술 활동을 이어갔다. 다다이즘의 주요 인물이었던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은 다다를 뛰어넘은 새로운 예술 가치를 창출해내며 초현실주의를 탄생시켰다.

브르통은 정신 의학을 전공하였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초현실주의의 주요 키워드인 ‘무의식’은 그의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나오게 된 용어이다. 프로이트는 ‘억압(repression)’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착안해내었는데, 부정적인 기억을 의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심리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은 의식에 존재해 있던 것이 억압에 의해 의식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르통은 이러한 무의식의 개념과 더불어 이성과 논리를 거부하고 꿈과 연상 등을 강조하며 초현실주의로 다가갔다. 그는 「초현실주의 선언」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초현실주의에 큰 획을 그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정의를 구분하고 꿈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며 초현실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글에서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초현실주의. 남성명사. 순수 상태의 심리적 자동운동으로, 사고의 실제 작용을, 때로는 구두로, 때로는 필기로, 때로는 여타의 모든 수단으로 표현하기를 꾀하는 방법이 된다.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아쓰기.⁷⁾

5) Joachim Nagel(2007), 『어떻게 이해할까? 초현실주의』, 황종민(역)(서울: 미술문화, 2008), p.7.

6) Mathew Gale(1998),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역)(서울: 한길아트, 2001), p.6.

7) Andre Breton(1930),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역)(서울: 미메시스, 2012), pp.89-90.

위의 개념처럼 초현실주의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무의식을 탐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표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이미지들과 상징을 통한 간접 인식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시각 영상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일체로 초현실주의를 나타내고 인식하여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작업에 주로 적용된다.⁸⁾

이와 같은 이유로 무용 작품은 시각 예술의 일환으로 초현실주의 이미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무대를 구성하는 세트와 소품, 무용수들의 움직임 등의 시각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이미지들이 생성되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관객들은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보고 작품의 의도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곤 한다. 이미지들의 총체가 모여 작품이 완성되므로 초현실주의의 이미지 표현 기법을 무용 작품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시대를 거둬하며 초현실주의를 표현하는 여러 기법들을 창안해냈다. 시각 예술에서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은 주로 6가지로 나뉜다. 자동기술법,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 오브제, 레이오그램이다. 그 중 자동기술법,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를 본 연구의 표현기법으로 선정하여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동기술법(Automatisme)

초현실주의에서는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꿈과 무의식의 상태에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자동기술법’이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내면의 이미지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꿈의 논리와 연상 내용을 언어예술작품으로 옮기려고 했다.”⁹⁾ 이처럼 브르통은 자동기술법을 통한 무의식적 표현은 일상을 초월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법은 초현실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법으로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다. 어떠한 이성적인 기술보다 의식이 없는 즉흥성을 강조한 이미지 기법이다.

1950년대 자동기술법과 같은 즉흥성과 우연성을 강조한 무용가로는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이 있다. 그녀는 작품 「세 명의 그룹과 솔로 무용수들을 위한 16개의 안무 16 Dancers for Soloist and Company of Three」를 통해 인간의 감정들을 9가지로 나누어 표현하였는데 동전을 던져 그 순서를 정하였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용수들의 등퇴장이나 시간과 공간을 미리 계획하지 않고 공연을 올리는 순간 결정을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공연을 하는 장소 또한 체육관이나 박물관 등 전형적인 극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공연을 올릴 때마다 다른 그림을 형성하였다. 머스 커닝햄의 위 작품은 그 순간의 무의식적 현상에 따라 결정하며 우연성과 즉흥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데페이즈망(Dépaysement)

데페이즈망은 프랑스어로 낯설다는 의미와 더불어 다른 생활환경에 두어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결합되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 표현 기법

8) Robert Lebel(1990), 『초현실주의』, 김정란(역)(경기: 열화당, 1992), p.80.

9) Joachim Nagel(2007), p.25.

에서 데페이즈망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엉뚱한 오브제를 합쳐 모순된 이미지를 선사한다. 이처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익숙한 것들이 전혀 만나지 않을 법한 이미지들과 상충하며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내는 표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무용 작품에서 데페이즈망은 무대 위의 영상이나 댄스필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무대 위의 무용수들은 안무가가 구상한 이미지의 동작들을 보여주는 반면 무용수가 보여주는 느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띄워 데페이즈망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각의 연출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작품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무대 세트나 소품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기도 한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댄스필름 분야에서도 움직임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데페이즈망 효과를 줄 수 있다. 전혀 연결성이 없는 장면들을 붙여놓기도 하며 오히려 영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덧붙여 원래의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미지의 나열은 단편적일 수 있는 작품의 이미지와 해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3. 콜라주(Collage)

초현실주의 기법에서 또 하나의 대표 표현 기법인 콜라주는 폴로 붙인다는 뜻이며 관계없는 종이나 사진을 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콜라주의 등장으로 인하여 평면 작품이 대다수였던 미술 작품에 입체적인 요소가 나타나면서 많은 미술가들이 콜라주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낯선 요소를 결합한다는 의미에서는 데페이즈망과 비슷할 수 있지만 콜라주는 데페이즈망과 달리 입체적으로 덧붙이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그의 저서 「회화를 넘어서」에서 다음과 같이 콜라주를 설명하였다.¹⁰⁾

콜라주 기법은 둘 이상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엉뚱해 보이는 평면에서 우연히 혹은 인위적으로 만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체들이 맞부딪히면서 튀어 오르는 시의 불꽃이다.

콜라주를 통해 발현되는 새로운 이미지는 의식을 넘은 무의식의 세계를 모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콜라주 기법은 관계없는 요소를 붙인다는 개념을 뛰어넘는다. 본연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 다른 요소와 함께 합쳐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충격을 준다. 콜라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기도 했다. “사물을 임의로 병치시키는 것, 물체와 배경의 불협화음, 이런 콜라주의 수법 그 자체가 초현실주의적이었다.”¹¹⁾ 이처럼, 콜라주는 이미지의 혼합을 통해 모순과 역설을 강조하며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표현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무용작품에서도 전혀 관계없는 요소와 장면들을 나열하며 의미를 재탄생 시키는 것을 콜라주 효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¹²⁾ 또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완전히 다른 질감의 무대 미술, 소품을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마치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작품과 같은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다. 1917년에 초연된

10) Joachim Nagel(2007), p.31.

11) C. W. E. Bigsby(1972), 『다다와 초현실주의』, 박희진(역)(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79), p.68.

12) 조규성(2015), p.14.

「Parade」는 레오니드 마신(Leonide Massine)이 안무하고 입체파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가 의상과 무대미술을 디자인하여 콜라주의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무대 위 세트와 의상이 움직임의 질감과 상충하며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준다. 또한 무대 미술과 움직임의 만남이 익숙하지 않은 요소들의 충돌을 일으켜 콜라주 기법의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4. 프로타주(Frottage)

프로타주는 ‘문지르다’와 ‘비비다’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발전된 용어이다. 에른스트가 발명한 기법으로 “바닥의 질감을 그려내기 위해 종이를 거친 마룻바닥 위에 놓고 부드러운 연필로 문지르는 것이다”¹³⁾. 즉, 나무와 천 같이 울퉁불퉁한 면에 종이를 대고 문질러 벗겨진 표면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프로타주는 예술가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예상하지 못하며 이는 자동기술의 무의식적인 표현법과 유사하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능동적인 부분을 축소시키고 의식적인 정신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자동기술법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¹⁴⁾ 프로타주의 기법은 무용작품에서 사용되는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영상의 효과를 통해 무용수 신체를 문지르는 기법을 보이며 어떠한 무용수인지, 무용수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의 기법인 자동기술법,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는 모두 작품의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은 것들을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고 새롭게 작품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을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 분석

1949년 미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포사이드는 10대 때부터 무용에 관심을 가졌다. 11살 때부터 발레를 접하면서 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67년에 잭슨빌 대학교(Jacksonville University)에 발레 전공으로 입학하고 그 후 조프리 발레학교(Joffrey Ballet School), 아메리칸 발레 학교(American Ballet Theater School)에서 발레를 배웠다. 1973년, 그는 독일로 넘어가 독일의 저명한 무용단으로 알려져 있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Syuttgart Ballet)에 들어가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1976년, 그의 첫 작품 「태초의 빛 *Urlicht*」를 발표하며 안무를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8개의 무용단에서 초청받아 안무 활동을 하였으며 1984년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의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여 그의 예술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에서 그는 안무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그 시기 대표작으로는 「연가 *Love Song*」(1979), 「보행 *Gänge*」(1983), 「임프레싱 씨자르」(1988), 「에디오스: 텔로스 *Edios: Telos*」(1995) 등이 있다. 2004년 그는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에서 해임되었으며 2005년 포사이드 무용단을 창립하였다. 그의 무용단을 창립한 뒤 그는 기존의 클래식 발레의 형식을 해체시키며 다른 장르와 콜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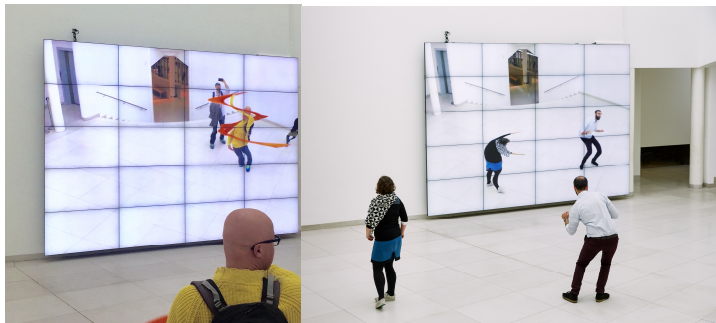
13) Mathew Gale(1998), p.240.

14) Robert Lebel(1990), p.25

작업을 통해 탈장르적이며 시대의 변화 따른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다. 2000년대 이후 주목받는 그의 작품으로는 「재생된 하나의 평면」(2000), 「흩어진 군중」(2002), 「어디든지 동시에 Nowhere And Everywhere At The Same Time」(2005), 「헤테로토피아」(2006), 「문제의 사실 *The fact of Matter*」(2009) 등이 있다. 그의 작품들 중 「추상화된 도시」(2000), 「흩어진 군중」(2002), 「헤테로토피아」(2006)의 작품에 담긴 초현실주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윌리엄 포사이드가 2000년대 이후 창작하였으며 다른 예술 분야와 콜라보 작업하여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추상화된 도시」

「추상화된 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있고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몸이 촬영된다. 촬영된 관객의 몸은 ‘모핑(morphing)’이라는 기술이 사용되면서 관객들의 신체가 변형된다. ‘모핑’은 하나의 형체가 형상 변형 기법으로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화하는 기법이다.¹⁵⁾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객의 촬영된 신체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관객의 촬영된 신체는 실제 비춰진 몸과는 다르게 꼬이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며 사람이 실제로 움직여서 표현할 수 없는 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실제 신체와 영상의 신체의 다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며 실제 신체를 이리저리 움직여보기도 한다. 영상에 비추어지는 관객들의 변형된 신체들은 화면에 문질러진 효과를 나타내며 초현실주의의 프로타주 기법을 보이고 있다. 프로타주 기법은 울퉁불퉁한 면에 종이를 대고 문지르는 기법으로 작가는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지 예상하지 못한 채 그 시각에 촬영된 관객의 신체의 모양과 모핑의 기술에 따라 변화한다. 영상에 담긴 관객들의 신체가 다양한 방향으로 꼬여있고 옆으로 퍼져있어 마치 종이에 문질러진 질감처럼 화면에 신체들이 문질러진 효과가 돋보인다.



〈그림 1〉 작품 「추상화된 도시」¹⁶⁾

물리 그랜처(Molly Glentzer)기자는 “관객들은 지나가는 몸을 캡처하고 비추어지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추상화된 도시’에서 그들 자신의 초현실적인 감각들을 경험할 것이다.”¹⁷⁾라고 언급하며 본 작품

15) “모핑”,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D%95%91>, 2021. 4. 2. >.

16) William Forsythe, William Forsythe Choreographic objects, <https://www.williamforsythe.com/installations.html?&no_cache=1&detail=1&uid=5, 2021. 4. 1. >.

17) Molly Glentzer(2019. 5. 1.), *William Forsythe installation gets MFAH visitors in the mood to move*,

의 초현실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변형된 신체를 보던 관객들은 스크린을 보며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고 신체부위들을 각각 움직여보기도 하며 혹은 무관심하게 지나쳐가기도 한다. 어떠한 이미지가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때마다 찾아오는 관객과 그들의 행동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과물이 탄생한다. 이는 곧 초현실주의 기법의 자동기술법과 같은 맥락이다. 자동기술법은 이성적인 기술이나 의도 없이 무의식을 강조하며 전혀 계획되지 않은 즉흥성이 돋보이는 기법이다. 사람에 따라, 사람들의 몸매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효과는 초현실주의의 기본이 되는 자동기술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흩어진 군중」

「흩어진 군중」에서는 소품의 사용을 통해 초현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전형적인 무대가 아닌 전시장과 같은 큰 공간에 수천 개의 풍선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린제이 아들러(Lindsay Adler)작가는 본 작품을 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포사이드 설치작품의 이미지는 정확히 내가 선정했던 세가지 키워드와 일치하다 : 초현실, 하이키(high key), 꿈같은”.¹⁸⁾ 이처럼 작가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초현실주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작품의 초현실주의성이 드러나고 있다. 본 작품의 초현실적인 이미지는 바닥에 붙어있는 풍선부터 천장에 달려있는 풍선까지 제각각의 높이에 위치한 하얀색 풍선들이 현실과는 떨어진 세계를 연상하게 한다. 〈그림 1〉에서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는 초현실주의의 특성 중 자동기술법의 즉흥적인 요소로 안무가가 의도적으로 소품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고 그의 무의식의 이미지를 풍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자동기술법을 설명하는 단어들 중 ‘꿈’이 강조되는데 풍선으로 가득 찬 공간은 마치 ‘꿈’ 같은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데페이즈망과 콜라주의 표현기법이 드러난다. 데페이즈망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나열하여 공간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공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소품의 나열로 모순된 느낌을 주며 이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콜라주는 익숙하지 않은 요소를 덧붙여 입체적인 느낌과 함께 공간과 사물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텅 빈 공간에 풍선을 임의로 배치시켜 공간의 입체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공간과 엉뚱한 사물의 만남을 통해 모순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작품 「흩어진 군중」¹⁹⁾

¹⁸⁾ <https://www.houstonchronicle.com/life/style/luxe-life/article/William-Forsythe-installation-gets-MFAH-visitors-13810539.php>, 2021. 3.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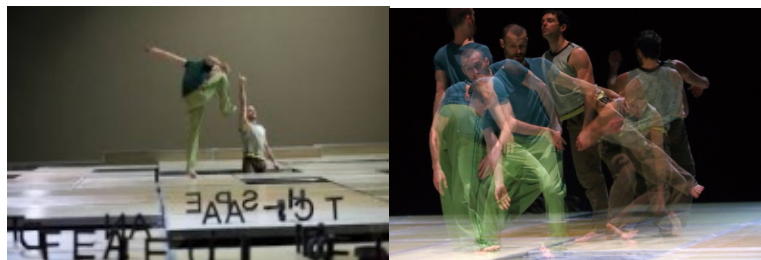
¹⁹⁾ Lindsay Adler(2013), *Creative 52: Weekly Projects to Invigorate Your Photography Portfolio*(Peachpit Press), p.20.

본 작품은 특정한 무용수가 출연하지 않고 작품을 보러온 관객들이 작품의 출연자가 된다. 작품을 보러온 관객들은 풍선을 구경하기도 하고 풍선을 몸으로 만져보기도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품을 다룬다. 포사이드는 어떠한 관객이 오는지, 관객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나오는 즉흥성을 작품의 의도에 담았다. 관객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퍼포머가 되지만 관객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의도되지 않은 소품의 위치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상하지 못하는 관객의 움직임과 행동이 함께 드러나며 무의식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발현된다. 이것은 브르통이 앞 장에서 언급하였던 순수상태의 심리적 자동운동이라는 초현실주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작품은 소품의 위치와 관객의 움직임이라는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성적 사고가 통제되어 무의식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이미지를 도출하고 있다.

3.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는 무대를 두 공간으로 나누어 공연이 진행된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관객은 공간을 옮겨가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테이블로 가득 찬 공간 위에는 문자들이 소품으로 나열되어 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자들의 조합은 초현실주의의 콜라주 기법처럼 테이블에 문자를 붙여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정확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닌 해체된 알파벳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하나의 그림 같은 이미지로 다가온다. 이 이미지가 주는 효과는 앞의 장에서 설명된 콜라주와 일맥상통하다. 공간과 문자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요소가 인위적으로 부딪혀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간 위에 소품이 덧붙여져 콜라주가 강조하고 있는 입체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 공간에서는 아무 세트도 없는 블랙박스에서 무용수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작품이 진행되고 있는 내내 특정한 음악은 나오지 않고 무용수들의 음성만 들린다. 무용수들은 단어를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낫설다’, ‘혼중’, ‘다른 세계’ 등을 의미하는 헤테로토피아의 뜻을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한 공간에서 오브제, 무용수의 움직임, 구음 등 전혀 조화롭지 못한 요소들이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이질적으로 배합이 되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데페이즈망 기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구음과 같은 엉뚱한 요소가 만나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는 효과와 부합하다.



〈그림 3〉 작품 「헤테로토피아」²⁰⁾

19) William Forsythe, William Forsythe Choreographic objects, <https://www.williamforsythe.com/installations.html?detail=1&no_cache=1&uid=22, 2021. 4. 1.>.

포사이드는 2013년 「헤테로토피아」 공연을 하기위해 방한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고, 어떤 메시지도 던지지 않습니다. 공연이란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과학자처럼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작업하는 것은 아니다.”²¹⁾ 이와 같이 포사이드는 의식적인 의도가 없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현실적인 방향으로 작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작품의 의도는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에서 추구하는 무의식적 표현과 방향성이 같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들의 나열과 같은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세계는 의식에서 나오지 못하는 무의식을 드러낸 듯하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에 담긴 초현실주의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세 작품 「추상화된 도시」, 「흩어진 군중」, 「헤테로토피아」를 선정하였다.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표현기법 중 자동기술법, 데페이즈망, 콜라주, 프로타주의 특성을 기반으로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분석하였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에서부터 시작되어 20세기의 대표적인 예술사조로 자리매김했다. 시각 예술에서 주로 나타나며 현실을 뛰어넘어 무의식을 강조한 이미지를 도출한다. 초현실주의를 표현하는 여러 기법 중 의식 없이 표현하는 자동기술법, 엉뚱한 오브제의 이용을 통해 이미지의 모순을 일으키는 데페이즈망, 낯선 요소를 덧붙여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콜라주, 종이에 문지르는 느낌을 나타내는 프로타주는 이미지를 통해 예술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초현실주의는 현실 같지 않고 꿈과 같은 효과를 선사하며 관객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추상화된 도시」에서는 관객들의 신체가 큰 스크린에 촬영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바라보며 프로타주의 기법이 돋보였다. 프로타주의 문질러진 효과를 영상의 모핑 기술을 이용해 나타냈다. 또한 관객의 신체와 행동에 따른 즉흥성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자동기술법의 무의식이 강조되었다. 「흩어진 군중」에서는 작품이 행해지는 공간에 수천 개의 하얀색 풍선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 이미지는 엉뚱한 오브제의 결합이 강조되는 데페이즈망과 콜라주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공간에서 관객이 풍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며 의식적인 의도가 없는 무의식이 강조되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나타났다. 「헤테로토피아」는 두 개의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되며 테이블, 알파벳 소품, 무용수들의 구름들이 모두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상충하였다. 전혀 조화롭지 못한 요소와 움직임들이 해체적인 성향을 보이며 익숙한 공간과 물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데페이즈망의 낯설게 만들기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헤테로토피아」 공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윌리엄 포사이드는 의식적인 의도가 없는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부합하는 방향성을 밝혔다.

20) The Korea Herald,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30410000930>, 2021. 4. 1.>.

21) 송태형(2013. 4. 9.), “혁신적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드 방한... “현란한 몸짓에 연극·미술 융합했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3040917291>, 2021. 4. 3.>.

세 작품 모두 초현실주의 기법 중 자동기술법의 의식적인 기술이나 의도가 없는 무의식에 의한 표현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공간과 오브제의 엉뚱한 조합을 통해 데페이즈망 기법이 나타났고 공간과 낯선 요소가 덧붙여져 입체적인 효과와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는 콜라주 기법이 보였다. 또한 관객의 신체를 영상의 기술로 문지르는 효과를 보여주며 프로타주 기법이 나타났다. 세 작품은 퍼포머와 관객을 나누는 기준이 없으며 관객이 공간의 퍼포머가 되기도 하며 관객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작품에서 도출되는 그림이 달라졌다. 이러한 즉흥성이 부각되는 세 작품은 초현실주의가 강조하는 무의식을 통한 표현이 도드라져 보였고 현실을 뛰어넘는 꿈의 이미지를 선사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 포사이드의 세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기법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그의 작품이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로는 윌리엄 포사이드 뿐 아니라 다른 초현실주의적인 안무가들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무용 작품에서 나타나는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과 특성을 분석해보는 것을 제안해본다.

- 열화당 편집부(1976). 『현대미술용어사전』. 경기: 열화당.
- Andre Breton(1930).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역). 서울: 미메시스. 2012.
- Mathew Gale(1998).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역). 서울: 한길아트. 2001.
- Joachim Nagel(2007). 『어떻게 이해할까? 초현실주의』. 황종민(역). 서울: 미술문화. 2008.
- Linsay Adler(2013). *Creative 52: Weekly Projects to Invigorate Your Photography Portfolio*. Peach Pit Press.
- Robert Lebel(1990). 『초현실주의I』. 김정란(역). 경기: 열화당. 1992.
- 김서현(2010). 초현실주의 상상적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희(2016).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에 활용된 오브제의 표현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일화(2012). 윌리엄 포사이드(W.Forsythe)의 작품에 나타난 유목적 신체. 『무용예술학연구』 38: 67-88.
- 부세희(2018). 「Heterotopia」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민정(2018). 윌리엄 포사이드의 안무 성향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 왕자목, 조은숙(2021). 피핑툼 무용단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1: 41-55.
- 이나현(2012). 윌리엄 포사이드의 몸에 대한 시각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5: 103-121
- 이나현(2015). 윌리엄 포사이드의 즉흥 테크놀로지에 나타나는 비재현성에 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5: 81-95.
- 이주형(2010). 윌리엄포사이드의 공간구성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원(2015). 20세기 초 무용에 나타난 팝프 파탈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4: 167-210.
- 조규성(2015). 미디어를 활용한 컨템포러리 댄스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재혁(2015).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윌리엄 포사이드 작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태형(2013.04.09.). 혁신적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드 방한.. “현란한 몸짓에 연극·미술 융합했죠.”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3040917291>, 2021. 4. 3.>.
- Molly Glentzer(2019. 5. 1.). Wiliian Forsythe installation gets MFAH visitors in the mood to move, <<https://www.houstonchronicle.com/life/style/luxe-life/article/William-Forsythe-installation-gets-MFAH-visitors-13810539.php>, 2021. 3. 22.>.
- Oxford Reference.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095829684>, 2021. 3. 20.>.
- The Korea Herald.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30410000930>, 2021. 4. 1.>.

William Forstythe, William Forsythe Choreographic objects. <https://www.williamforsythe.com/installations.html?&no_cache=1&detail=1&uid=5, 2021. 4. 1.>.

William Forstythe, William Forsythe Choreographic objects, <https://www.williamforsythe.com/installations.html?detail=1&no_cache=1&uid=22, 2021. 4. 1.>.

논문투고일 2021. 05. 14.

심 사 일 2021. 05. 19.

심사완료일 2021. 05. 27.

A Study on Surrealism Expressions Techniques in William Forsythe's Choreographies

– Focusing on *City of Abstract*, *Scattered Crowd*, *Heterotopia* –

Ahn, Hyunmin*

Doctoral student, Chung 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surrealism expressions in three pieces of William Forsythe by referencing four surrealism techniques : automatisme, dépaysement, collage, frottase. To analyze the works, the author enumerates notions and traits of surrealism techniques referring to other scholarly papers, books and videos. The City of Abstracts has a rubbed effect of audience's body image. Scattered Crowd puts thousands of ballons in the space which, looks unfamiliar and irrelevant. Heterotopia emphasizes unconsciousness, which is the point of surrealism using props and sounds of dancers. Through these analyses, Forsythe's works exemplify how surrealism techniques affect on contemporary dance works.

Keywords: William Forsythe(윌리엄 포사이드), Surrealism(초현실주의), Technique(기법), Expression(표현), Image(이미지)